

◇ 정치 정상화와 증시 부양책 ◇

샷대 잃은 펫목... 증권 시장

최근 우리 증시는 투매와 폭락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증시안정을 위하여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몇가지 처방을 발표했지만 속수무책이다. 투자자들은 더 고약한 극악 처방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작년 1년 7개월이 기록했던 주가지수는 불과 일년 반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일컫는 6백까지 무너져 금융공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친들 무슨 대수냐고 간단히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증시는 이제 몇몇 사람의 천유물이 아니며 주식시장에 뛰어든 수백만 국민들(대략 6백만 주주)에게 직접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시의 붕괴로 산업의 자금조달이 마비되어 가족이나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를 초토화시켰던 1930년 미국의 대공황도 사실은 1929년 미국 증시의 붕괴가 출발이었다.

현재 증시침체가 지속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크게 장내인과 장외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일의 장내인은 소외기능의 상실이다. 지난 89년에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의 자금조달은 21조원(국민주매각 7조원 포함)이나 되었는데 이 금액은 89년초 시가총액대략 32.5%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1.7%, 그리고 대만의 2.0%에 비하면, 단기간에 걸친 어마어마한 불황공급이었으며 경제원천적인 수요공급원칙을 무시한 정책실패로써 우리 증시는 완전한 소외화량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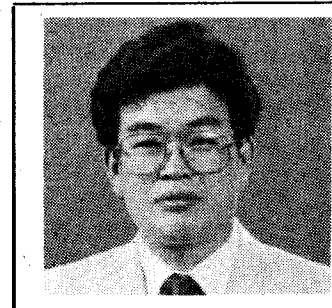
소외기능의 상실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장외인이다. 주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현상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주는 바로미터이다. 특히 우리 증시는 경제여건보다는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지배하면, 주가는 춤을 추게 되고 비관이나 지배하면 증시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뭐니 뭐니해도 제일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거버민자당과 현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불안과 신뢰의 상실이다.

특히 국민의 뜻을 저버린 3당 통합과 그후 공룡 거여의 힘을 여지없이 발휘했던 26개 비민주 법안의 날치기 통과, 야당의원들의 국회이탈, 남북교류의 실패 등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인 악재들은 경제 사회 각분야에 파급되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뿌

리는게 심어 놓았다. 혹자는 페르시아인 사해와 이로 인한 유가인상불안 등 국제요인을 탓하기도 하나 이는 주가지수 하락폭 4백 포인트 중 불과 70여 포인트의 하락에 기여했을 뿐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상황의 허무주의와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에 투자자들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주가가 하락할 때 투매현상을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정권은 신뢰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은 커녕 단기적인 주가 떠받치기 정책으로 점

체의 악순환만 더하여 왔다. 정부여당은 증시를 둘러싼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름아닌 정부여당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의 우리 증시를 지누르고 있는 악재들은 쉽게 제거될 것 같지 않다. 정치



정혜영
(전주대학교 교수·회계학)

정부여당의 독선·무능 증시침체 유발 파행정치 불식여부가 안정된 시장 조성의 관건

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주가가 하락할 때 투매현상을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정권은 신뢰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은 커녕 단기적인 주가 떠받치기 정책으로 점

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최근과제로써 우선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 기회에 증장기적으로 증시를 활성화 내지 정상화시

키기 위한 선진제도의 마련과 이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서둘렀으면 한다.

첫째로, 최단기 부양정책으로 증가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상환융자금 및 미수금 정리를 증언기금에서 매입하는 일을 서둘러 추진했으면 한다.

현재의 미상환융자금 및 미수금 등과 관련된 악성 매물은 약 1조 2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데 이는 증언기금을 서둘러 조기조성할 경우 증언기금의 총 주식매입여력은 2조원 정도로 되어 자금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투자자들의 회생을 어떻게 감수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 극약처방으로 한국은행의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통화공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증언기금 이외에 주식매입자금에 추가로 공급될 경우 그 효력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돈을 푸는 정책은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는 다수 국민들이 증시부양책으로 회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시 폐장하라
증시가 6백선이하로 떨어지자 증시 폐장을 외치는 투자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와 고려하고 있는 선진제도의 도입 및 법제정에 대한 사항들은 대체로 환영한다. 그 내용들로는 (1)증언기금 미조성분의 조기조성(위에서 언급), (2)각종 연금의 주식투자 허용, (3)주식액면분할, (4)배당을 제고, (5)세계개편 등으로써 대체로 현 증시의 소외화 증진을 위한 선진적 방안들이며 구미 선진국들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제도의 도입에도 다음과 같은 원칙이 꼭 지켜졌으면 한다. 하나는 증시부

지분분산을 통한 경제력 집중화라는 지극히 정당한 정책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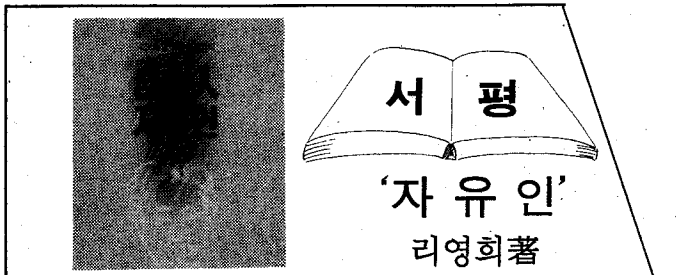
또 하나의 원칙은 증시부양을 위해 소액투자자나 소액수혜자들의 회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종연금의 주식투자 허용은 당연히 증시안정과 아울러 다수를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기관투자가 범위확대 및 제한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는 중요한 보완 제도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의 뒤에는 다수의 소액수혜자들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주가폭락으로 퇴직연금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그 피해는 퇴직연금에 의존하는 수 많은 수혜자들에게 직접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증시에 주가지수 선물 또는 옵션 등이 필수적으로 먼저 도입되어야 하며 이의 거래가 정상화된 다음에 연금에 대한 주식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의 이번 증시 대책에는 빠져 있지만 기업의 공시제 정비와 선진화가 절대 필요하다. 경제의 급속한 양적팽창이 부의 편지로 인한 여러가지 경제 사회문제를 가져왔듯이 증언기금의 급속한 양적팽창은 정보의 부재 또는 불균형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 분배를

정보의 균질화 정책과 더불어 시장효율성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가급적 많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토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자동적으로 내부정보에 의한 착취현상을 극소화하며 정보소유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시켜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신뢰구축에 발단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선진제도의 보완과 꾸준한 개선의지도 현정권이 구출하는 데 역부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악성 장외인인 정치권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각성없이 는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고도 과학문명 사회이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혼란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의식 있는 한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너무나 갈급함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고뇌 방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자주 있다.

우주와 세계, 속에서의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순간순간의 삶의 국면에서 어떻게 판단 행동하는 것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살아 나는데 있어 올바른 의의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에 휩싸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 땅의 정치사회의 모습은 그동안 각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우선 자기 한 몸을 제도적 폭력의 사정거리로 부터 멀리 머물러 있게 잘 견디는 데에 급급하게 만든 암울한 시대가 지속됨으로써, 가치관

'진실에 바친 삶'의 소산

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 또는 비판이나 평가조차도 심가한 채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리교수의 '자유인, 자유인'은, 그의 다른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하위의 장막을 벗겨서 진실을 드러내려는 그의 일관된 삶의 자세가 여실히 드러나, 반지배 이데올로기적 인식의 자세가 곳곳에서 배어나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많은 정치·사회·문화·사상적인 현실문제들에 대하여 저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 이해하고 고도 고민하여 왔는가를 담은 평

화의 교과서'라는 그의 저작들에 대한 낙인적 별칭이 적절할 묘사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또 하나의 저술이다. 리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바깥은 새로운 인식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을 왜곡된 모습이나 진실된 모습으로, 타에 의해 조제된 대로가 아닌 자신의 창의적 시각대로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 인간·사회·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시론형태의 글로 쓰여져서 이미 여러 일간지들에 기고했던 글들의 모음이기에

자 나름의 인식자세와 관점에서 쓰여진 만큼, 전체적인 면에서 그 가치가 크게 평가될 수 있다. 치러라도-물론 시각에 따라, 일상을 뛰어넘는 저자의 예리한 비평적 인식태도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몇몇권의 글에서에 관점이나 논리에 대해 평자로 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음을 밝힌다.

정부의 수준은 국민수준의 반영'이라는 명제에 대해, 저자는 '상당한 진리가 있어 보이지만', '냉소적 정치학자'의 '냉소적, 민중(국민)정치론'이라

인 면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도록 문명적이진 감동세력으로 본다면 그 결론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위하는 정치와 정부에 관한 제반문제들의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면을 한결을 물러서서 천착한다면, 정부수준은 국민수준을 반영'이라는 명제가 결코 냉소적이거나 민중정치론적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가사회의 모습은 곧 인간성 존의 확대판이라는 플라톤 정치철학의 인간론적 원리에 의한다면, 우리가 병든 정치사회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아닌 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부족한 때문이다. 그렇기에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병든 사회상을 인식한 나 자신의 의식을 가다듬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면에서 평가한다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나, 사용되고 있는 어휘, 인식 방법 등에 비해 볼 때, '자유인, 자유인'은 열정, 기백, 충정, 정서 등이 활동하는 온-인간의 실존영역을 영(soul, psyche), 혼(spirit, mind), 육(body)으로 나누어 볼 때-영역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정보

제 4기 평화 강좌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사회의 재인식'을 주제로 매주 금요일(하오 3시) 교대 정치관 세미나실에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 4기 평화강좌가 진행된다. 이 런 강좌는 김남식(평화연구원), 하용출(서울대교수), 小牧 樸夫(동경대아사 경제 연구소)씨 등이 담당한다. <연락처: 920-1812>

정보과학회 가을 학술제 논문 모집

정보과학회는 10월 28일과 27일 이틀간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릴 가을 학술발표회에 발표할 논문을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연락처: 588-9246~7>

'한배달' 충북중원군 일대 답사

오는 16일 충북 중원군 일대를 중심으로 민족사적대순례를 갖는 '한배달' (회장 박선우)은 중원 고구려비·단양장성비·온달산성비

폐기물 활용 세미나

제3회 폐기물 재활용 세미나가 한국자원재활용공사 주최로 오는 11월 오전 11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다.

Anam Delta

합의한 2학기 캠퍼스 생활! 경희의 사자대 보람찬 나날이 되세요.

“名曲은 純音(순음)으로 듣고 싶다”

아남델타 700 RCD

명곡(名曲)은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무의식의 세계를 일깨워 정서개발을 해주며 생활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한옥터는 낮든 저든과 순한 중·고음— 이것이 훌륭한 아남델타가 추구하는 순음(純音)입니다. 순음(純音)은 디스코나 가설무대에 설치하는 내부공간이 텅 빈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와는 달리, 음향공학적으로 특수 설계된 내부구조 (인클로저)와 진동판에서 재생되어지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말합니다. 특히 「아남델타 700」은 여유있는 출력의 박력사운드로 맑고 깨끗한 순음을 더욱 깊게 해 청소년의 정서순화,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적합합니다.

다가가서 조작하지 않고도 음악에 심취할 수 있는 57key 전기능리모콘과 첨단기능의 델타700시리즈—

- 미리듣기로 내장 컴퓨터로 조종되는 정밀출력(100W) 80이피 사운드시스템의 볼륨 컨트롤 시스템
- 2인칭 소리는 원단 다발 필름 송신시스템의 디지털시각처리
- 자동으로 음색조절의 100이피필터와 LCD-그래픽 디스플레이
- 완전 자동 순음재생 시스템의 3웨이 3스피커시스템
- 디스크송신장치와 탁월한 원음재생의 전자동력드라이버
- 최대 120cm CD를 180분 연속 재생하는 마이크로시트 및 에코기능
- 가성비에도 쉽게 녹음 편입되는 마이크로시트 및 에코기능

델타700RCD ●AMC-700R(CDP) ●AP-3000RG/AS-F700/AS-S10BT 권총소버가격: ₩835,000 (시라온드 스피커 포함)

고품질 AV 전문메이커

아남전기